

한국의 사회변동과 여가의 의미변화: ‘놀고 있네’에서 ‘신바람’으로*

최 석 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레저경영전문대학원

기존의 여가연구는 이론을 결여한 경험적 연구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과 사회구조와 개인의 인성을 분리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본 논문은 문명화과정론에 입각하여 한국사회가 구조적인 변동을 겪음과 동시에 구성원인 한국인의 인성 역시 변동을 겪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해방을 맞은 한국사회는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에 돌입하였으며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민주화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세계화로 대별되는 제3의 사회변동에서 경제위기를 겪고 국민은 민족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함과 동시에 군사모형에서 합리적 지배모형으로 지배연합이 바뀌는 변동기의 갈등을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여가의 사회적 의미도 ‘놀고 있네’라는 비아냥에서 ‘신바람’이라는 긍정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주요어 : 여가, 일, 문명화과정론, 민족정체성 정치, 인성과 사회구조

* 본 연구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최석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레저경영전문대학원,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67-7
Tel : 010-2314-5556, E-mail : sokhochoe@naver.com

서론

노동과정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작업장에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물리적 환경만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다. 그 때가 1940년대였다. 이후로 여가학자들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새로운 조망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새로운 연구 분야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일과 여가의 관계’였다. 일과 여가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시작한 여가학은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등 분과학문의 연구 성과를 흡수하면서 급속하게 발전한다. 그러나 여전히 단편적인 경험적 연구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일의 잔여범주로 여가를 설정하는 오류를 범한다. 1970년대에 이르러 ‘생애주기와 여가’라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견하고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가족친화경영’이라는 사회적 화두를 던진다. 일과 삶의 균형이 일과 삶의 조화로 발전한 지금에 이르러서도 여가학은 여전히 출발점에서의 오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여가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가연구방법의 개발 및 새로운 연구 주제의 발굴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여가에 대한 이론화 작업이다. 이론화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는 단편적인 경험적 연구에 치중하게 되고, 학제간 연구라는 명분에 안주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적인 주제와 소재로 여가연구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요원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명화과정론에 입각하여 한국인의 인성과 한국의 사회구조 변동에 따른 여가의 사회적 의미변화를 탐구함으로써 여가연구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한다. 먼저 이론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한국의 사회구조와

한국인의 인성 변동을 건국을 전후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추적한다. 종착점에서 여가의 사회적 의미가 ‘늘고 있네’에서 ‘신바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분석한다.

본론

여가이론 - 여가의 문명화

여가를 이론적 연구의 영역으로 설정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여태까지는 일의 잔여범주로서 또는 노동에 대한 연구의 부산물로서 여가를 연구해 왔었다. 본격적인 여가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최대의 문제의식은 여가에 대한 이론화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성과를 거둬 낸 사회학자가 엘리아스(Norbert Elias)다. 그는 자신의 문명화과정론을 여가와 스포츠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연구함으로써 여가에 대한 이론화에 기여했다.

문명화과정론

엘리아스의 연구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개념 중 하나는 ‘상호지향 되어 있고 의존적인 사람들의 구조’를 뜻하는 결합체(figuration)라는 개념이다(Elias, 1995). 이 개념을 바탕으로 고립된 개인을 주요 분석단위로 삼음으로써 개인에게 잘못된 우선권을 부여하는 폐쇄적인 관점으로서 호모 클라우서스 모형(Homo Clausus Model)¹⁾과 경제적 토대나 구조 위에 사회가 형성되고 그것이 사회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는 구조주의적 사회 모형²⁾ 양자를 모두

- 1) 현상학과 실존주의 사회학이 여기에 해당한다.
- 2) 자본주의의 기원 찾는 마르크스와 프로테스탄티

거부한다. 대신에 결합체사회학이라는 과정사회학적 모형을 창안한다. 엘리아스는 축구예로 들어서 결합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Elias, 1978; Rojek, 2000a: 237-239). 다른 집단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축구에서 한 팀의 움직임은 상대팀의 움직임과 상호관련 되어있다.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은 유동적이며 그 행위에 있어서 비교적 개방적이다. 경기의 흐름은 어느 편에 의해서도 혹은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도 일방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 경기는 선수들간의 복합적인 역동성과 여러 가지 긴장된 균형상태를 포함한다. 그래서 축구경기는 역동적이다. 심지어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도 결합체를 이루고 있는 각 개인들은 서로간의 관계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조정하고 또 재조정한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은 특정한 결합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형성하는 특정한 결합체로서 여가를 연구한다.

엘리아스의 사상에서 모든 사회적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과정인 문명화과정은 세 개의 결절점이 있다. 궁정사회(2003), 문명화과정(1996; 1999), *The Germans*(1996)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궁정사회와 문명화과정이 여가연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궁정사회에 대한 분석에서 특히 중요한 세 측면은 핵심적인 사회적 단위로서 궁정사회, 도구적·법적 합리성으로서 궁정합리성, 궁정사회의 사회적 관계가 갖고 있는 동학 등이다. 여기에서 엘리아스는 프랑스 왕가의 확대와 그 후손이 궁정사회로 편입된 것은 근대적 심리구조와 사회관계의 주요한 시금석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궁정합리성은 법적·합리적 부르주아 합리성의 토대가

되었다. 프로테스탄트 부르주아가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말한 행동이 궁정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행동이었고, 궁정사회에서 개인의 실존과 정체성은 대단히 재현적이었다.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시하고 공연함으로써 그들은 실존과 정체성을 구성했다. 이 과정은 고도로 경쟁적 이었고 또 변동이 심했다. 사회적 정체성을 재현하는 방식은 에티켓과 예절의 실행이었다. 에티켓의 의례는 개인의 위치를 사회적 연결망 내에서 보여주고 또한 개인의 위치를 현상하고 조정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Krieken, 1998: 84-93).

첫째, 궁정사회는 공사간의 구분이 없었으나,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엄격한 구분이 생겨났다. 궁정사회에서는 공적·사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노동에만 제약이 따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르주아 사회에서 사생활은 그 사람의 직업적 또는 전문적 지위에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궁정사회의 두 번째 특징은 권력관계의 작동기제에서 비롯되는데, 그 추동력은 경쟁과 경쟁우위를 위한 기회였다.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는 경쟁자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었다. 궁정사회는 자신의 위치보다 낮은 사람과 자신을 차별화하고, 높은 사람과 자신의 차이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간의 무수한 경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쟁은 궁정합리성의 많은 측면을 확산시켰는데, 처음에는 궁정사회로 진입하려고 시도했던 부르주아 상층에게로 다음으로는 그 이하의 층으로 점차 확산되었다.

궁정사회에 대한 엘리아스의 분석은 부르주아 사회의 전사(前史) 그 이상을 보여준다. 그것

즘의 출현에 대해서 논하는 베버의 논의가 여기에 속한다.

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위세의 재현을 둘러싼 권력관계의 조직은 근대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그것이 도구 합리적인 근대인이라는 자아 이미지에 부합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근대조직의 작동에서 궁정사회의 동학을 여전히 관찰할 수 있고, 근대 사회생활의 성공은 능숙한 재현·전시·공연 등에 크게 좌우된다. 근대조직의 도구적·법적 합리성은 궁정사회의 합리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근대의 비공식 조직구조와 조직문화는 합리성에 바탕을 둔 궁정사회의 동학에서 유래되었다. 양자의 합리성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궁정사회에서 발전된 행위양식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등은 전체 유럽인들에게도 중요성을 갖는다. 이를 규명한 저서가 *문명화과정*(1996; 1999)이다.

모든 문화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여타 문화의 구성원들 보다 더 문명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어떤 문화의 집단 정체성의 토대는 문명과 야만간의 대립이다. 현대 유럽사회의 심리구조적 특징을 구성하는 핵심은 무시무시한 야만에 몰두하고 있었던 시간에도 유럽인들은 자신을 문명화되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문명화과정*에서 엘리아스는 이중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심리적인 것을 정적이고 불변하는 어떤 것으로 보아서 심리적인 것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과정은 심리적 변동의 동력이라는 점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호이징하의 설명방식을 따라서 엘리아스는 *문명화과정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단순하고 순진한 전형적인 중세의 행동에서는 보다 폭력적이고 직접적으로 감정이 표출되었으며, 일반적인 재고적 사고에서 심리적인 뉘앙스나 복잡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폭력·성행동·육체기능·식습관·식탁예절·대화의 형식 등에 적용된 기준은 점점 더 정교화되었으며, 부끄러움·당혹감·협오 등은 더욱 증가했다(Krieken, 1998: 93-107).

엘리아스의 *문명화과정* 모형이 여가연구에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Rojek, 2000a: 242). 첫째, 근대 여가활동을 자유와 동일시 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균형과 제약에 대해 역사적으로 특수하게 구성된 감정경제에 종속된다. 둘째, 근대사회에서 자발적이고 폭력적이며 그리고 강렬한 감정을 분출시키고, 흥분을 폭발시키는 것은 중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문명화된 제약이라는 한계에 직면한다. 셋째, 근대의 여가활동은 점차 모방적인 행위 형태를 띠게 된다. 문명화된 제약 때문에 감정을 발산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금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여가장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폭력을 수반하지 않고 실제로 감정을 발산하지 않으면서도 실제와 마찬가지로 흥분을 경험하는 것이다. 즉, *문명화과정론*으로 말미암아 모방흥분만 가능하게 된 것이다.

문명화과정과 여가연구

인습적으로 해 오던 바와 같이 일과 여가로 양극화시켰을 때, 일이라는 말은 보통 특수한 형태의 일만을 일이라고 칭한다. 즉, 생계비를 벌기 위해 사람들이 수행하는 그런 형태의 일만을 일이라고 한다. 보다 분화되고 도시화된 사회에서 대부분은 이 일이 시간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고 고도로 전문화된다. 동시에 이러한 사회의 성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시간(spare time)에 상당한 양의 무보수 노동(unpaid work)을 한다. 남은 시간 중에서

일부만이 자신에게 즐겁고 자유롭게 선택하였으며 돈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여가에 사용된다. 대략 계산해 보더라도 남는 시간의 절반가량은 일에 사용된다. 남는 시간은 직업적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전체 시간이라고 한다면, 남는 시간활동에는 사적 노동과 가정관리, 휴식, 생물학적 욕구의 충족, 사고, 모방 또는 놀이활동 등의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남는 시간 중에서 일부를 여가에 쓸 수 있다 (Elias & Dunning, 1986b: 67-71). 즉, 여가는 남는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남는 시간 중에서도 약 절반가량은 일하는데 사용한다. 시간과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일과 여가를 양분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엘리아스는 여가와 일을 양분한 후 여가를 일과 연관해서 연구하는 기존의 전통이 잘못 되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엘리아스는 자신의 문명화과정론에 비추어 여가를 연구한다. 문명화과정 속에서 사람의 행동에 대한 통제는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게 된다. 기능의 분화, 인간관계의 인간화, 감정규제력 증대, 중앙집권화, 피지배자에 대한 지배자의 영향력 증대, 탈신화화, 세속화, 과학화 등과 같은 근대 유럽문명의 추세와 국가형성과정은 결합되어 있다. 문명과정의 맥락 속에서 국가형성은 사람들을 길들이고, 평화롭게 하고, 문명화한다. 중세의 무사들이 이해대립이나 감정대립을 해소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즉흥적인 무력행사를 주저하지 않았던데 반해 일단 물리적 폭력이 중앙정부에 의해 독점된 절대주의 국가에서는 사적인 차원에서의 무력행사는 일반적으로 금지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스스로의 인성 속에 잠재해 있는 공격욕을 스스로 억제하는 훈련을 받게 된다. 이러

한 훈련은 어릴 때부터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최재현, 1987: 239-247).

그러나 사회발전이 이러한 방향으로만 나아감에 따라 사회적·개인적 금지를 완화함으로써 균형을 회복하는 대항운동이 등장한다. 균형을 회복하는 대항운동을 현대사회에서는 여가영역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음악과 극장의 새로운 발전, 노래와 춤의 새로운 형태 등이 그 예에 속한다. 우리의 여가활동에서 흥분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노골적인 감정표현을 통제하고 금지한데 대한 보상이다 (Elias, 1986b: 65-66). 산업사회뿐만 아니라 여타 모든 형태의 사회에서도 여가활동의 결정적인 특징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감정을 억제하도록 통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가활동 중에는) 통제를 해제하는 것이다 (Elias, 1986a: 95-96). 여가이벤트의 공통적인 특성인 모방측면은 실제 생활 이벤트를 재현함으로써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감정을 경험함으로써 이다. 실제 생활 상황에서 발생한 흥분(비모방 흥분)과 여가이벤트에 의해 각성된 흥분(모방 흥분)간의 비교는 차이점과 유사점 모두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기본적인 생리학적 측면은 양자 모두가 동일하다. 차이는 심리학적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것이다. 실제로 흥분(비모방 흥분)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위협이 된다. 모방흥분은 사회적·개인적으로 위협은 되지 않지만 카타르시스 효과를 가질 수 있다(Elias, 1986b: 79-81). 엘리아스(1999: 327-332)는 이상과 같은 여가관을 자신의 이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개인의 존재를 통과하여 지나가는 컨베

이어 벨트가 더 길어지고 복잡해진 나중에 가서야 개인은 좀 더 지속으로 자신을 지배하도록 배운다. 즉, 개인은 이제 예전만큼 그렇게 자기열정의 포로는 아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활동에 기능적으로 의존하게 됨으로써 이제 예전보다 한 층 더 구속받듯이, 그의 행동과 본능 및 성향의 직접적 충족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약받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 삶은 덜 위험해졌지만, 적어도 욕망의 직접적 표현이란 관점에서는 감정도 쾌락도 없는 무미한 삶이다. 일상에 없는 것을 인간은 꿈에서, 책과 그림에서 그 대체물을 찾는다. 그래서 귀족은 궁정화의 과정에서 기사소설을 읽기 시작하고, 시민들은 영화를 통해 폭력과 열정을 즐긴다.

육체적 대립과 전쟁과 분쟁은 줄어들고, 죽은 가축을 자르거나 식탁에서 칼을 사용하는 관습 등과 같이 그것을 연상시키는 것도 사라지거나 적어도 정확한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는 무대는 인간의 내면으로 이전되어서 스스로에게 가하는 평화적인 억압장치가 확고하게 자리잡는다. 이러한 자율통제와 자기강제는 개인의 행동과 본능생활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평생동안 무감각하게 존재할 정도로 자동적인 불안, 특정 분야의 본능을 너무나 왜곡시켜 그 에너지가 정상이 아닌 방법인 강박행위 또는 일탈행위, 통제불가능하고 편파적인 애증과 증오, 기묘한 쾌락에 대한 지나친 애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한편, 본능 에너지들이 사회적으로 무용한 강박적 행동이나 기이하다고 여겨지는 습관과 쾌락으로 변형되는 대신, 개인적으로 최대의 만족감을 주는 동시

에 사회적으로도 생산적인 활동이나 재능으로 유도되기도 한다.

이로 말미암아 근대사회에서 여가는 사유화·개인화·상업화·온순화되고 있다(Elias, 1999: 327-331, 389-392; Rojek, 2000a: 33-38, 245-249). 근대사회는 여가경험의 중심지로서 테마파크·카페·해수욕장 등과 같이 여가만을 위한 공간을 창조했다.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사회적 맥락이 변동함으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일과 여가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여가의 공간변동이다. 이와 함께 일터로부터 분리된 공간인 가정을 여가경험의 주 무대로 변경시킴으로써 또 다른 여가공간을 창조했다. 여기에는 가정 내 여가경험 조직화의 도구들인 텔레비전·비디오·오디오 등과 같은 가전제품의 대량생산이 기여한 바가 크다.

이러한 제품의 사유화(privatisation)는 모방흥분을 통한 카타르시스의 해소라는 근대적 대중여가의 문명화 도구들이었다. 이와 같은 사유화는 여가활동에 대한 자본의 강도를 강화함으로써 상업화(commercialisation)를 초래했으며, 또한 다른 사람과 분리된 개인이 선택한 여가에 열중하기 위해서 구매한 여가장비를 가지고 골방에서 즐긴다는 측면에서 개인화(individuation)로 이어졌다. 상업화로 말미암아 여가는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그런 만큼 사회적 필요의 충족보다는 이윤추적을 목적으로 조직화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폭력의 사용은 더욱 계산적이고 신중해져 가고 폭력적인 감정의 전반적인 온순화(pacification)가 진행된다. 이로 말미암아 격렬한 감정은 자아의 요새에 강금당한다. 즉, 외부불안은 감소하고 내부불안은 증가하고 사람간의 투쟁으로 해결하던 긴장을

자기자신과의 투쟁으로 극복한다. 온순화는 여가에도 영향을 미쳐서 여가형태의 폭력성을 감소시키고, 여가활동을 통하여 평화롭고 통제된 방식으로 강렬한 감정을 일깨움으로써 인간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다. 무미건조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상에 없는 것을 온순한 여가실행에서 추구하는데, 문명화과정으로 사라져 버린 일상의 폭력·감정분출·열정 등을 대체해 주는 소설·영화·텔레비전 드라마·스포츠 등을 읽고 본다(Elias, 1999: 327).

문명화과정의 세계화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된 문명화과정은 지구적 상호연결을 강화시키고, 지방 또는 민족적 경험을 지구적 흐름과 연결시키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게 만들었다. 민족국가를 넘어서는 네트워크와 연결의 급증을 고려하면, 우리는 초국가적 문화와 지구문화의 초기발전 단계에 있는 듯하다. 이 과정은 에스닉 또는 민족문화로부터 미국화와 같은 초권력이나 세계주의적 통신과 연결망의 문화도 수반한다. 따라서 유럽화·동양화·아프리카화·남미화 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지구적 단계에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걸쳐서 서구사회를 관찰하면 사람들의 관습과 사회적 인성간에 확연한 차이를 관찰할 수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 각 층 간의 확연한 대조는 오히려 감소한다. 서구문명화과정의 특징은 개인과 사회 양자에서 대조가 감소된다는 것이다(diminishing contrasts). 또한 유럽화라는 단방향적 흐름에 이어서 아시아화·미국화·아프리카화·남미화 등의 다방향적 흐름으로 말미암아 문화는 더욱 다양해진다(increasing varieties). 이는 개인 행동과 내면의 심리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능분화의 진보와 인간통합의 강화와 더불어 다양한 계층들과 나라들 사이의 두드러진 차이가 줄어들는데 반해 문명화의 틀 안에서 그들 행동양식을 주도하는 방식과 색조는 더욱 증대된다. 우리는 이제 개인적 행동과 감각의 발전에서 이에 상응하는 현상에 부딪히게 된다. 개인행동의 두드러진 차이들이 점점 더 약화되면 될수록 또 쾌락 및 불쾌의 요란스러운 표출이 자기강제를 통해 점점 더 억제되고 약화되고 변형되면 될수록, 행동의 색조 및 명암에 대한 감수성은 더욱 커지며 또 사람들은 몸짓과 형식들에 대해서도 민감해진다(Elias, 1999: 388).

그러므로 문명화과정의 세계화는 서구문화와 비서구문화를 상호융합시키고, 그에 따른 신종결합이 등장하게 하며, 서구와 비서구간의 확연한 대조를 감소시키고, 문화적 다양성을 증가시킨다(최석호, 2003; Maguire, 1999: 36-46). 이를 여가활동의 한 사례로서 외식문화와 연관해서 살펴보면, 음식소비와 사회집단간의 대조는 감소했다. 또한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인 것이 지구적 음식소비와 요리에서 나타난 변동의 본질이다(Mennel, 1985: 331-332). 영국의 경우에, 패스트푸드 시장에서 음식의 미국화가 뚜렷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탈리아·인도·중국·그리스·터키 등도 영국음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각국의 음식과 영국음식 간에 대조는 줄어들었지만 영국음식의 다양성은 더욱 증가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미국화과정만으로는 음식소비와 관련된 목적·형태·즐거움의 변형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문명화과정론은 국민국가

의 건설을 전후한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나타난 일련의 여가변동과 한국인의 인성변동 그리고 여가에 대한 관점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자원이 되고 있다.

경험적연구 - 한국사회의 문명화

국민국가의 건설과 민족자긍심 손상

1945년 8월 15일 오랜 일제의 식민통치를 뒤로하고 해방을 맞는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주의에 대한 자주적 저항으로 쟁취한 해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국가의 건설은 3년 뒤로 지연된다. 이른바 미군정이 시작된 것이다. 미군정은 1945년 9월 기존의 일제 경찰기구를 부활하고, 1946년 2월 미군정경찰로 재편했다. 그 핵심요원은 친일경찰관료와 우익세력이었다. 1946년 1월에는 조선국방경비대를 창설하고, 그 해 6월 조선경비대로 개편했다. 주로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으로 편성했다. 1945년 12월에는 군사영어학교를 설립하여 간부를 양성하였으며, 1946년 5월부터는 조선경비사관학교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일제 총독부 관리기구가 그대로 미군정 관료기구로 확대, 개편되었다(김호기, 1999:158-160).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일제 총독부의 관료뿐만 아니라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친미적 인사가 우대를 받았다는 정도다. 일제 강점기 동안 호사를 누리고 미군정기에 중용된 친일세력에게 고스란히 나라를 넘긴 격이 되어 버렸다.

1948년 8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한 이승만 정권은 토지개혁을 통해 봉건적인 지주계급을 몰락시킨다. 그러나 좌우대립과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의 유산을 남긴 채 1960년 419의거에 떠 밀려서 하와이로 간다. 미국과

소련으로 양극화된 전략적 경계선은 새롭게 건국하는 국민국가 내부의 긴장과 갈등으로 이어져서 미국을 대변하는 남한과 소련을 대변하는 북한으로 나뉘어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귀결되었다. 또한 새로운 국민국가 대한민국은 친일세력과 손을 잡은 지배집단과 독립운동가와 비판적 지식인 집단간 갈등, 즉 엘리트 집단간 국내적 양극화로 구조화된 긴장과 갈등이 폭발하여 이승만의 하야로 나타났다. 미·소 양대진영으로 양극화된 거대국가간 전략적 경계선은 개별 국민국가 대한민국을 관통하였으며, 이런 양극화는 엘리트 집단간 국내적 양극화로 이어졌다(Elias, 1978: 207-228).³⁾

한·중·일 삼국간의 오랜 제거경쟁에서 중국에게 밀려서 왕의 나라로 스스로를 낮춰 칭하고, 마침내 난장이의 나라 일본에게도 밀려서 임진왜란을 겪고, 급기야는 일제에 의해

3) 분화과정과 통합과정, 개별 국민국가 내부의 발전과 국민국가간 발전 등을 구조화된 측면으로 모두 포괄하는 엘리아스의 2층 구조 사회발전모형으로 국민국가 형성을 해석한 것이다. 개별 국민국가의 발전에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과 국민국가간 발전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은 기능적으로 상호의존적이다. 또한 지위를 상실하는 집단과 새로운 기능을 차지하는 지위집단 사이에 벌어지는 긴장과 갈등은 발전의 구조적 특징에 속하는 것이다. 두 지위집단 간의 구조화된 긴장과 갈등이 사회발전 과정의 핵심이며 출발점이다. 엘리아스는 2층 구조 사회발전모형을 근거로 마르크스의 사회발전론이 간과하고 있는 점을 비판한다. 마르크스는 상승하는 중산층과 전통적인 귀족적·군사적·농업적 지배층 사이의 투쟁을 등한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의 사회발전론은 마르크스 자신의 이상적 형이상학에 심하게 흔들려서 상승하는 계층은 좋고 하강하는 계층은 나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자주적 근대화마저도 좌절당하고 식민지로 전락한 뼈아픈 국가의 운명이 계속 되었다. 그 이후에도 자력으로 독립을 쟁취하지도 못했고, 자력으로 국민국가를 수립하지도 못했다. 국민국가의 수립과정에서 구 지배계급인 지주계급을 몰락시키기는 했으나, 그 공백을 중간계급 지식인이나 부상하는 시민계급이 채우지도 못했다. 독립운동가라는 정당성과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집권한 이승만 초대대통령은 독점한 폭력수단을 오히려 집권하지 못한 독립운동가와 좌파 중간계급 지식인에게 휘둘리면서 집권기간 중 편할 날이 없었다. 급기야 독점한 폭력수단을 오히려 친일세력에게 떠맡기는 우를 범하게 된다.

이리하여 수 세기에 걸친 국가의 운명은 근대적 국민국가 한국의 구성원들 모두의 하비투스에 침전된다. 현재 한국 국민 하비투스는 국민국가 형성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그 이전에 있었던 국가의 운명과 무관하지 않다. 개인으로서 한국인의 신경을 자극해서 고통을 주는 것보다 우리로서 한국인, 즉 한국인의 인성구조의 층인 우리 층(the we-layer)을 교란시켰을 때 한국인은 훨씬 더 큰 충격을 받는다(Elias, 1998: 18-20). 건국 이후 지금까지도 우리로서 한국인의 민족정체성을 교란시키는 주범은 일본이다.

임진왜란에서부터 일제강점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 동안 한국인의 하비투스에 침전되어 있는 손상된 우리로서 한국인은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시민계급의 자리를 친일세력에게 고스란히 내 줌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마치 운명처럼 손상된 민족정체성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한국인은 빨갱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전라도 사람에게 감정을 받

산한다. 거둬진 패배 속에서 상처 받은 민족 자긍심을 유대인에 대한 살인적 폭력으로 눈 가림하려고 들었던 독일인처럼 한국인은 공산주의와 호남에 분풀이했다.

군사모형과 보수적 민족주의

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해방이후 우리사회의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부상한 친일세력의 지지를 받은 박정희는 고도 성장을 통해 보릿고개를 완전히 넘기고, 미국식 서구문화가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게 했다. 친일세력과 함께 형성한 지배결합체는 민족주의에 호소함으로써 사회전반적인 동의를 도출하였으며, 바로 그 민족주의를 분파적 이해를 추구하는 지렛대로 삼았고, 민족주의의 신조는 통치와 지배의 도구가 되었다. 왕조국가에서 지배집단간의 불신과 두려움을 특징으로 하는 전사적 행동강령은 박정희를 정점으로 하는 근대적 국민국가에서 민족주의라는 이상적인 우리(we-ideal)와 결합했다(Elias, 1996: 147-150). 일본군의 계승자가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민족주의를 전국민적 정서로 자리 잡게 만든 것이다.

집권과 정치적 안정에 성공한 박정희는 '40대 기수론'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부상을 주도함으로써 친일세력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자생적 중간계급이 대체해 가는 일련의 과정을 촉발시킨다. 민족적 자긍심에 손상을 주었던 출신성분을 우리사회를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시키는 산업화의 성공으로 가림으로써 모순을 치유하는 듯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산업화의 성공을 뒤로 하고, 민주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남긴 채 1979년 10월 26일 목숨과 정권을 동시에 내놓았다.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 봄이 왔다. 그러나 1980년 서울의 봄은 짧았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광주학살을 자행하고 집권한 것이다. 1987년 6월 한 달 내내 대한민국을 완전히 멈추어 버린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른바 6월 항쟁이다. 또다시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는 6월 항쟁에 무릎 꿇고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다. 그리고 한 차례 더 정권을 연장할 수 있었다.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선언과 제13대 대통령 취임이 그것이다. 신군부가 집권했던 시기동안 두 대통령과 민주화 진영 모두가 두 발 뺀고 잠을 청할 수 있었던 때는 88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던 기간 뿐이었다.

구군부와 신군부가 집권한 시기동안 지배와 복종의 군사모형이 형성되었고, 설득과 협상의 합리적 지배모형은 발붙일 곳이 없었다.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사회세력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고, 자유주의적 중간계급은 점점 더 보수적-민족주의적 중간계급으로 변질되어 갔다. 구군부와 산업화 성공과 신군부의 경제적 성공은 비판적 중간계급의 입지를 더욱 좁혀 놓았으며, 군사모형을 정착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한편으로 친일세력에게 지배자의 자리를 고스란히 내 줌으로써 민족적 자긍심을 손상당하고,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성공을 구가함으로써 현실에 눈을 돌리는 보수적 민족주의가 발흥하게 되었다.

세계화와 민족자긍심 회복

그로부터 5년이 흐른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이 제14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한 민주주의를 완성한다. 1987년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한국의 민주화는

아시아에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갔다. 세계화의 기치 하에 하나회 척결(군부개혁), 금융실명제 도입(금융개혁) 등 이전의 군부독재정권에서는 불가능 했던 개혁이 속속 이루어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민주화와 개혁의 열망은 경제위기 속에 묻힌다.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소위 'IMF 경제위기'에 빠진 것이다. 이로써 라인강의 기적을 증가하는 한강의 기적, 곧 세계에서 제일 빠른 압축적 경제성장이라는 신화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 친일세력에게 모든 자리를 다 내 줌으로써 국민국가의 근간에 대한 정당성을 상실해가면서까지 매달렸던 경제성장의 신화가 깨진 것이다. 이때부터 한국인은 민족정체성 위기에 시달리기 시작한다.

기업도 아닌 국가가 부도나는 이해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면서 심리적 공황상태에 휩싸이게 된다.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청년실업·명예퇴직·노숙자 등과 같은 신조어들이 속속 등장한다. 제일은행 명예퇴직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남은 동료들에게 회사를 꼭 살려내 달라고 호소하면서 쓸쓸하게 회사를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비디오는 '눈물의 비디오'로 불리면서 세간의 화제를 불러 모았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종말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온 몸으로 경험한다.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은 친인척 비리, 불법 비자금 등 이전의 민선 민간정부와 군부독재정권이 저질렀던 과오를 반복했으나, 군부독재정권 하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은 빨달린 괴물의 나라가 아니다. 동포의 나라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은 혈맹이 아니다. 이해득

실을 따져서 외교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나라다.

1980년대가 민주화의 10년이였다면 1990년대는 세계화의 10년이였다. 세계화에 대한 논의는 한국·한국인·한국사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한국·한국인·한국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불렀다(김광익, 2006: 84). 글로벌 표준(global standard)에 대한 강요와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 속에서 맞이한 새천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개최된 2002 한일 월드컵은 온 국민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들었다. 그 이전까지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축구가 국민스포츠가 되는 순간이었다. 길거리에서 파는 빨간 셔츠만 사 입는 바람에 휘장사업은 완전히 망해 버렸다.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외쳐 부르는 소리가 진동을 했고, 태극기는 온 국민의 얼굴과 옷 그리고 버스에서 하늘 높이 펄럭였다. 전세계를 향해서 민족정체성을 재현한 것이다. 세계화로 말미암아 초래된 민족정체성 위기가 여가장면에서 펼친 민족정체성 정치를 통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귀결되는 극적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2002 한일 월드컵은 그래서 민족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례였으며, 한·중·일 삼국의 제거경쟁(elimination competition)에서 패배했던 한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한 새로운 경쟁의 장에 다시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명문대학은 고사하고 대학 자체를 나오지도 못했고 아무런 정치적 기반도 없었던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의 열망 뒤에는 세계화라는 거시사회적 맥락의 변동과 민족정체성 정치를 통한 민족 자긍심의 회복 그리고 비판적 중간계급의 부상 자리 잡고 있다. 신군부가 집권한 시기동안 청년시절을 보낸

새로운 사회세력이 비판적 중간계급을 형성하여 체제순응적인 중간계급을 대체했다. '역사바로 세우기'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의 새로운 지배연합을 형성한 비판적 중간계급의 합리성을 구현하는 사회운동이었으며 사회기구였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여 대한민국의 밤을 환히 밝혔던 촛불과 군사훈련을 하던 주한미군의 탱크에 희생당한 효순이 미선이에 대한 추모의 열기는 세계화와 민족자긍심 회복 열망 그리고 비판적 중간계급에 의한 체제순응적 중간계급의 대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즉, 탄핵 당한 것은 400년 만에 부활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었으며, 탱크에 희생당한 것은 민족의 자긍심이었고, 위협당한 것은 체제순응적 중간계급의 정권재탈환 시도로 말미암은 비판적 중간계급의 지배연합이었다. 강력한 저항의 동학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연구분석 - 여가의 의미변화

독일인과 한국인의 하비투스

독일의 국민국가 형성과정에 나타난 특징은 독일인의 하비투스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하비투스를 이해하는데도 준거점이 된다. 국민국가 독일의 초석을 놓은 것은 보불전쟁을 승리로 이끈 비스마르크였던 것처럼 대한민국 건국 초기 근대화의 초석을 놓은 것은 박정희였다. 양국 공히 군사모형으로 시작한다. 또한 양국 모두 경제개발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는 다시 각각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국민 하비투스의 형성과 변동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도 양국은 서로 준거점으로 작

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엘리아스는 독일의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정리한다(Elias, 1996: 1-20).

첫째, 독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인접 사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구조변동이나 그 관계에서 차지한 위치가 변동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즉, 라틴화된 집단과 슬라브집단의 중간에 위치했던 독일어를 사용하는 부족들은 인접집단과의 결합체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국가형성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한국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둘째, 유럽과 인류의 발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집단 간의 제거경쟁이었다. 독일은 이 경쟁에서 패배했고, 그것은 독일인의 하비투스에 영향을 미쳤다. 위화도 회군을 통해 중국과의 제거경쟁에서 스스로 패배하고, 임진왜란과 일제 강점기를 통해 일본과의 제거경쟁에서 강압적으로 패배하였던 역사적 과정은 한국인에게 씻을 수 없는 민족자공심의 손상을 줌과 동시에 한국인의 하비투스에 그대로 침전된 것과 마찬가지다.

셋째, 프랑스·영국·네덜란드 등과 같은 여타 유럽사회와 비교해 보았을 때, 독일에서 국가발전은 단절과 불연속으로 점철되었다. 그래서 독일의 도시 상인계층은 제2 신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들의 신분은 궁정귀족 뿐만 아니라 지방귀족보다 열등하기도 하였다. 네덜란드나 스위스에서는 도시상인집단이 사회적 위계의 최상층을 차지했던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그들은 자신의 도시 뿐만 아니라 전체 공화국을 장악했다. 따라서 암스테르담이나 우트레히트 등지의 도

시인들은 자신의 유산을 네덜란드 국가발전과 네덜란드인의 하비투스에 맞추었다. 협상과 타협의 통치술은 도시에서 국가로 확대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일에서는 지배와 복종의 군사모형이 다양한 수준으로 협상과 설득의 도시모형에 침투해 들어갔다.

자주적 근대화 노력의 좌절과 일제 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국가발전의 단절과 좌절은 시민계급의 성장을 저해하였으며, 친일세력의 집권과 보수적·민족주의적 중간계급과의 지배연합으로 귀결되었다. ‘하면 된다’로 대변되는 지배와 복종의 군사모형 정착은 비판적 중간계급의 합리성, 곧 협상과 설득의 도시모형을 배제시켰다.

마지막으로, 18세기 독일에서 중간계급과 궁정귀족 간의 갈등은 계급갈등의 한 표현이었다. 19세기와 20세기에 중간계급 내부에는 두 층, 즉 관념적·자유주의적 중간계급과 보수적·민족주의적 중간계급이 있었다. 19세기 초 양자 간의 이슈는 독일의 통일이었는데, 평화적 수단을 동원했던 중간계급의 통일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비스마르크의 도움을 받은 프러시아 왕의 군사적 개입에 의한 승리는 궁정귀족과 군사귀족의 입지를 강화했다. 1871년 보불전쟁에서의 승리는 그 전기였다. 군사모형은 자리를 잡고, 군사모형은 제2 신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중간계급으로 확산되었다.

신바람 난 한국인

독일의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독일인의 하비투스를 한국의 세계화 과정에서 형성된 한국인의 하비투스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지배와 복종의 군사모형에 기반 하였던 지배연합의 산업화 성공과 경제

적 성공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비판적 중간계급에게 침묵을 강요하면서 사회전반에 군사모형을 확산시켰다.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진 한국인의 근면성실한 삶과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독일인의 삶은 군사모형의 성립 및 지배의 부산물이다. 이때부터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기를 즐겨했던 동쪽 오락케는 노동을 방해하는 모든 놀이를 '놀고 있네'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구성체에 변동이 발생한 것은 1987년 민주화운동과 1990년대 세계화 그리고 문민정부,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로 대변되는 정치적 변동이었다. 협상과 설득의 도시모형이 군사모형을 밀어내고 새로운 지배연합을 형성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대미종속의 경제관계도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구 지배연합이 완전히 패퇴한 것은 아니었다. 대통령 탄핵은 구지배연합과 신지배연합, 군사모형과 도시모형의 한바탕 싸움이 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600년간 누적되어온 민족자공심의 손상을 회복하고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노력의 좌절을 경험하였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좌절경험은 새로운 돌파구를 맞이한다. 놀이의 재발견이 그것이다. 계속되는 경제위기와 사회적 양극화 속에서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는 한국인이 미처 날뛰기 시작한 것이다. 여가장면에서의 민족 정체성 정치다. 이제 한국사람들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대신 한국영화를 본다. 브리티시 팝이나 아메리칸 팝 대신 한국 대중음악을 듣는다. 콜라 대신 매실음료를 마신다. 맥주와 위스키 대신 막걸리를 마신다.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여가변

동을 한류로 받아들인다. 부연하면, 한국인은 여가장면에서 민족정체성 정치를 펼침으로써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아시아인은 한국인의 정체성 위기의 부산물을 한류로 즐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수적 민족주의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경계한다. 즉, 끊임없이 세계화하고자 한다. 국가브랜드, 한식세계화, 한류세계화, 외자유치, 외국인노동자 등은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하는 집단적 노력을 보여주는 키워드다. 이로써 한국사회에서 여가는 '놀고 있네'라는 비아냥을 넘어 집단적 '신바람'으로 그 의미가 전환된다.

결 론

일과 여가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된 여가학은 여가 그 자체에 대한 연구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단편적인 경험적 연구를 넘어서 여가를 이론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문명화과정론은 서구유럽적 학문 전통에서 탄생한 여가이론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문명화과정론에 의하면 여가를 노동과 대비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또한 여가는 더 이상 노동으로부터의 탈출과 자유가 아니며 동시에 노동으로 인해 소진된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한 휴식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가장면에서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흥분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는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 읽는 소설, 듣는 음악 등은 여가장면에서 모방흥분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있다. 모방흥분에 대한 추구는 문명화에서 오는 억압

기제에 대한 심리적 대안이다. 다른 한편으로 여가는 사회구조의 변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세계화 과정에서 한국인에게 여가장면이 강력한 민족정체성 정치의 장이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동과 상호작용을 한 결과물이다.

인성과 사회구조 양자의 변동을 종합해 보면, 한국사회와 한국인이 생각하는 여가에 대한 사회적 의미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압축적 경제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근대화 시기에는 장시간 노동을 미덕으로 여겼으며, 따라서 여가는 ‘놀고 있네!’라는 비아냥의 대상으로 전락했었다. 그러나 정체성 정치를 특징으로 하는 세계화 시기에는 오히려 ‘신바람’의 진원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여가의 사회적 의미변화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구성원의 심리변화와 해당 사회의 구조변동을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파악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기존 여가연구의 문제점은 이론이 결여된 가설의 검증에만 매몰되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또한 기존의 여가연구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론적 관점의 획득과 해석의 엄밀성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여가연구의 지평확대에 기여한다는 함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연구와 이론적 해석 간의 지평융합이라는 미래의 과제는 언급조차 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참고문헌

김광역 (2006). 한국문화론의 정치인류학적 단

면 - 세계화와 신도불이 사이에서. 김정오·김광역·하용출·이천표 (2006). 한국 사회의 정체성과 글로벌 표준의 수용.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정오·김광역·하용출·이천표 (2006). 한국 사회의 정체성과 글로벌 표준의 수용.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호기 (1999). 한국의 현대성과 사회변동. 나남. 박명림 (2000). 근대화 프로젝트와 한국 민족주의.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 역사비평사.

윤소영 외 (2006). 2006 여가백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병천 편저 (2003).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창비.

최석호 (2006). 한국사회와 한국여가 - 근대적 대중여가의 형성과 문명화. 한국학술정보.

최석호 (2009). 여가의 발견 - 새롭게 열리는 여가의 세계. 일신사.

Elias, Norbert. (1978). *What is Sociology?*. 최재현 역 (1988). 사회학이란 무엇인가. 나남.

Elias, Norbert. (1982). *The Civilizing Process - The History of Manners*. 박미애 역 (1996). 문명화과정 I. 한길사.

Elias, Norbert. (1982). *The Civilizing Process - State Formation and Civilization*. 박미애 역 (1999). 문명화과정 II. 한길사.

Elias, Norbert. (1983). *The Court Society*. 박여성 역 (2003). 궁정사회. 한길사.

Elias, Norbert. (1996). *The Germans - Power Struggles and the Development of Habitus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Polity.

Elias, Norbert & Eric Dunning. (1986). *Quest for Excitement: Sport and Leisure in the Civilizing Process*. Blackwell.

- Elias, Norbert & John Scotson. (1995). *The Established and the Outsiders*. 박미애 역 (2005). 기득권자와 아웃사이더. 한길사.
- Krieken, Robert van. (1998). *Norbert Elias*. Routledge.
- Maguire, Joseph. (1999). *Global Sport: Identities, Societies, Civilizations*. Polity.
- Rojek, Chris. (1993). *Ways of Escape*.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 Rojek, Chris. (1985). *Capitalism and Leisure Theory*. 김문겸 역 (2000a). 자본주의와 여가이론. 일신사.
- Rojek, Chris. (2000b). *Leisure and Culture*. Macmillan.
- Rojek, Chris. (1995). *Decentring Leisure - Rethinking Leisure Theory*. 최석호·이진형 역 (2002). 포스트모더니즘과 여가. 일신사.
- Rojek, Chris (ed.). (1989). *Leisure for Leisure*. Macmillan.
- 논문투고일 : 2010. 12. 24.
1차 심사일 : 2011. 01. 22.
게재확정일 : 2011. 02. 17.

Social Changes and Changes of the meaning of leisure in Korea

Sokho Choe

Graduate School of Leisure Business, 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s and Technologies

As Korean society was changed from the traditional into the modern and once again is transforming into high modern society, meanings of leisure also are changing. However there were not many researches on changes of the two and even those were rarely found that leisure studies are based on theories in Korean academic context. The study provides changes of meanings of leisure from the theory of civilizing process and a detailed and critical examination of crises of Korean national identities in globalising society. As such reminds us that at a time changing structure of psyche and society delivers a new approach to our evaluation and appreciation of leisure. During the modernizing of Korean society work was a top priority and leisure could not take any priority over all other social institutions. However in a globalising world leisure has been taking as a vital sources of Korean dynamics.

Key words : leisure, work, civilising, process, national identity politics, personality and social structure